장애인 탈시설 정착지원 로드맵 나왔다

2024년까지 제도·인프라 구축
2025년부터 매년 750명 자립지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

사회복지시설을 떠나 자립하려는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탈시설 지원 사업이 본격화하는 2025년부터는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750여명씩 선정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2041년께는 시설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데 이를 '공동형 주거지원'으로 전환하고, 일부에는 '개별형 주거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형주거지원은 하나의 아파트에 장애인 3~4명과 배치된 전담직원이 함께 사는 형태이며, 개별형은 장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방문서비스가 이뤄지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희망 여부를 묻는 조사를 연 1회 시행한다.

기존에는 권고 사항으로만 돼 있었으나, 의무 시행으로 바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한다. 특히 시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립 전 중간 단계 거주 공간인 '체험홈'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 준비부터 초기 정착까지 체계적인 자립 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사를 배치하고, 주거환경을 장애인의 생활에 맞게 개선하며, 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정 국장은 거주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 지역사회 거주 경험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선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사전에 운용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과 진행 순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단계가 끝나면 체험 형태로 '자립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이 초기 정착 단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와도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금전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주거유지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도 늘린다.

이에 더해 의료 전문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제외하고는 신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거주시설도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바꾸기로 했다.

또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회라도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할 시에는 바로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운영비·인건비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안도 추진한다.

이 법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편견 등으로 보는 '사회적 장애'의 개념을 반영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하고 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40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고 이 법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환경칼럼

탈(脫)석탄의 큰 걸음을 내딛자

최홍엽

4년 전,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지만 그동안의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작년에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그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더디다.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후보군들을 놓고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높으나, 기후재난 대응이나 환경생태 문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고서 답변도 하지 않았건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고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이나 세대교체 문제가 앞으로 다뤄야할 이슈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산업화 이전의 지구온도에 비해 1.5도 이상 오른 지구를 두고 과학자들은 '유례없는 재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이른바 탄소 순배출제로(탄소중립)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 유력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지구 생태환경 파괴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먼저, 탈(脫)석탄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석탄발전소도 폐쇄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1년 3월 화력발전소의 50%를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확정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방한한 미국의 존케리 기후특사는 한국 정부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플랜트사업에서 철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탈석탄 압박을 가했다. 우리 정부도 탈석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강원도 삼척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은 싸지 않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기술혁신이 매우 빨라 석탄화력 보다 효율이 개선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기후대응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면,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미세먼지만을 생각해도 석탄 화력발전은 무엇보다 감축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철강, 화학, 반도체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석탄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산림훼손이나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이유로 여기서 멈칫거린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영원한 불량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하면서 송배전등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대규모 전기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처럼 석탄발전의 비율이 높으면 RE100과 같은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기 쉽다.

구미의 주요기업들은 에너지의 원천을 석탄발전이 아닌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 산림이나 경작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 공공주차장이나 각종 건물의 옥상과 벽면, 순환도로의 윗면 등 태양이 작열하는 유휴공간은 많다.

국내에서 신규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발전소건설에 투자한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리라 본다. 새로운 발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강원도 삼척지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현재 탈석탄 과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선거까지 기다릴 사안도 아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어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지할 운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작년에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탈석탄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광주 서구 생태학습도서관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사업 참여 어린이집 20곳 모집

광주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 20곳을 모집한다.

3일 서구에 따르면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고양이 기계와 모니터를 연결한 후 북카드를 꽂으면 그림책 화면과 동화구연을 제공하는 비대면 독서지원 서비스다.

특히 TV와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 어린이집 독서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 어린이집에는 디바이스 1대와 북카드 30장, 북카드 목록이 제공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사업에 선정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제공된 기기를 이용해 그림책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서구청 제공〉

무등산국립공원, 야외 활동 진드기 물림 주의보 긴 옷 착용 등 당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진드기 물림에 대한 경보가 내려졌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의 감염원으로 꼽힌다. 특히 치명률이 약 20%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게 국립공원 측의 설명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시 긴 옷을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귀가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필재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 "환경 측정분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은 환경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측정분석기술과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과정은 환경측정분석기술 실무경험을 갖춘 환경연구사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특히 교육생 전원이 환경측정분석사 시험과목인 이온류·금속류·휘발성유기화합물 실험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최신 분석장비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취업 준비생은 오는 17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me.go.kr/ysg/web/main.do)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mec0582@korea.kr)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 · 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굿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